

UFO와 우주철학의 행방(Ⅲ)

— 거대우주선, 사막센터 상공에 출현 —

항공우주연구소 편역

1992년 1월 하순, 미국 캘리포니아주 사막 센터를 방문한 일본 GAP 제 5차 조사단은 27일 오후 거대한 엽권연 모양의 물체가 상공에 출현해서 비행하는 것을 약 30분간 목격하자 경탄과 감동의 소리가 대 사막에 퍼졌다. 그 외에도 종종 UFO가 출현했고 어느 전화교환원은 귀국 도중 해상에 전개되었던 이상한 현상을 비행기 창을 통해 목격하고 색다른 흥분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 내용을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 GAP 본부는 1988년 11월에 제 1회 사막센터 조사를 실시한 이후, 작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탐사를 계속하고 있었다. 사막 센터라고 하는 것은 1952년 11월 20일, 조지·애덤스키가 이 사막지대에서 금성의 스카우트 쉽(비행접시)에서 내려선 금성인과 접촉했던 장소로 알려져 있다. 자세한 내용은 그의 저서(Flying Saucers Have Landed)에 나와 있다. 자세한 경위는 상기의 책을 참고하면 되겠지만 간단히 언급하자면 지금으로부터 43년 전, 애덤스키는 UFO관측을 목적으로 6명의 동행자와 함께 이 대 사막을 방문했다. 이곳은 로스 엔젤러스로부터 약 400km 떨어진 캘리포니아 주 남부의 모하비 사막의 한 구석으로 아리조나주에 가까운 아주 외진 땅이다.

애덤스키 금성인과 만나다

애덤스키 일행은 사막 센터의 중심부로부터 파커가도를 11마일 정도 달린 뒤 하차하여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때 상공에 거대한 모선이 출현한 것을 목격하고 즉시 조수 루시·맥기니스가 운전하는 차로 알·베이리와 함께 반 마일 정도 오던 길을 되돌아가 도로에서 사막지대로 들어가 정차했다. 그러자 전방으로부터 반 마일 정도 높이에 있는 바위산의 말안장 모양처럼 생긴 곳에 한 대의 비행접시가 있는 것이 보였다. 애덤스키는 갖고 있던 6인치 반사망원경에 명함판 카메라

라를 장착해서 그것을 촬영했다. 그는 계속해서 비행접시를 촬영한 후 전방 약 0.25마일의 골짜기에 한 명의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손짓하여 불렀다. 그리고 천천히 접근해 가봤더니 상대는 스키복과 비슷한 특수한 옷을 입은 남자였고 영어를 못하는 것 같았으며 손짓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걸어왔다. 애덤스키는 곧 상대가 다른 혹성에서 온 인간임을 깨닫고 몹시 놀라 기뻐하면서 역시 손짓과 텔레파시로 상대와 대화를 나누었다. 그 내용은 지극히 흥미 있는 것이었다. 약 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눈 후 상대는 지면에 일부러 두 개의 발자국을 냈다. 구두 바닥에 새겨져 있는 특수한 도형이 모래땅에 남은 것을 동행자의 한사람 죠지·윌리엄슨박사가 석고로 떴다. 애덤스키와 금성인, 이 두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광경은 먼 곳에서 쌍안경으로 관찰하고 있던 엘리스·웰즈여사가 스케치했다. 이 스케치를 기본으로 해서 여류화가 게이·벳츠가 애덤스키의 조언을 토대로 유화를 그렸다. 나는 이 모든 그림을 비스터의 애덤스키의 집에서 본 적이 있다. 그것은 1975년 1월로 당시 건재했던 웰즈여사가 보여주었다.

이때 나는 인근에 체재하며 3일간이나 비스터에 다녔고 애덤스키 문제에 관해서는 여사로부터 자세하게 전해들었다. 그 결과, 애덤스키의 체험이 진실임을 알게

〈그림-1〉 사막센터



화살표는 접촉 지점을 나타낸다.

되었던 것이다. 이때의 웰즈여사와의 대담도 신 애덤스키 전집 제 8권「UFO·인간우주」에 게재되어 있다.

세계각지에 출현한 애덤스키형 UFO

그 사막 센터를 우리가 매년 조사했던 것은 애덤스키가 금성인과 접촉했다고 하는 현장을 검증해서 그의 체험의 신빙성을 내세우려는 의도에 기인한 것이다. 철저한 실증주의자인 나는 현지를 탐색해서 완벽하고 확실한 증거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가 처음으로 저서를 출간했던 당시는 요란한 비난공격의 표적이 되었다. 그가 파로마산에서 6인치 반사망원경을 이용해 촬영한 다른 별의 비행접시나 모선도 역시 모형을 매달고 촬영한 위조사진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반 애덤스키파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그가 촬영한 비행접시나 모선과 완전히 똑같은 형의 UFO가 세계각지에서 목격되고 있고 사진으로까지 찍혀져 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도 1974년 10월 11일 히로시마현 오미찌시의 고등학생인 후지마쓰 가즈히코군이 애덤스키 형 비행접시와 모선의 사진을 촬영해서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 때도 나는 일부러 오미찌시의 가즈히코군의 집을 방문해서 회견하고 주위의 관계자들과도 만나서 철저하게 조사했지만 사실이었다. 그때까지 후지마쓰 가즈히코군은 애덤스키에 관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바위산에 새겨진 이상한 곡선

우리의 제 1차 조사의 목표는 우선 접촉지점을 알아내는 것에 있었다. 사실은 그 이전에도 미국의 한 단체의 안내를 받아 「접촉지점」이라는 장소를 몇 번이나 찾아간 적이 있었지만 그것은 훗날 실제장소에서 약 30km나 떨어진 다른 곳이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애덤스키는 「파커가도를 달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미국인 단체는 사막센터의 중심부를 이루고 있는 주유소로부터 언제나 좌회전하여 서쪽길을 가고 있었다. 이것은 파커가도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스스로가 진짜 접촉장소를 알아내겠다고 결심하고 소수 인원의 조사단을 편성해서 첫 번째 탐방을 했던 것이 1988년 11월이다. 그러나 이때도 실패하고 말았다. 11명이 현지를 방문하고, 이번에는 분명히 파커가도를 달려서 그 곳과 비슷한 언덕을 올라가 보았지만 흔적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바위산의 낮은 언덕에 올라갔을 때에 대단히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길이가 수미터에 이르는 평장히 아름다운 곡선이 암반에 새겨져 있었던 것이다. 거대한 곡선자를 이용해서 새긴 것

일까? 라고 생각될 정도로 멋진 곡선을 이룬 사막지대 오지의 바위산에 누가 새긴 것일까? 이것은 계산해보면 직경이 약 10미터인 완전한 원의 일부분이라는 말이 된다. 우리들이 그곳으로 올 것을 예지하고 있던 우주인이 전날 밤 비행접시로 하강하여 착륙하고 회전(자전)하면서 흔적을 남긴 것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했다.

진짜 접촉지점을 발견

제 2차 조사는 다음해인 1989년 1월에 시작되었고 필자, 사카모도 고이찌 · 시게코 부부, 시노마사시씨, 다니엘 로스 · 파멜라 부부 모두 6명이 참가했다. 이 때는 우연이라고는 말하기 어려운 무언가의 이끌림으로 인해 의해 진짜 접촉지점을 발견했다. 애덤스키가 접촉할 때의 동행자의 한 사람이었던 윌리엄슨 박사가 나중에 펴낸 저서 「Other Tongues-Other Flesh」에 게재되어 있는 사진이 절대적인 역할을 해냈던 것이다. 이것은 금성인이 비행접시로 날아서 떠난 뒤 사막에 남은 발자국 도형을 인류학자인 윌리엄슨 박사가 석고로 떠내고 있는 장면을 동행자의 한사람(아마 알 · 베이리씨의 부인 배타일 것이다)이 6×6 센치판 이안(二眼)레플렉스 카메라로 찍은 것인데 이 사진이야말로 애덤스키의 접촉지점을 나타내는 것으로는 더할나위 없이 귀중한 것이고 또 애덤스키 체험의 진실성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사진으로서도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이 사진의 복사본을 한

〈그림-2〉 1952년 11월 20일 애덤스키와 회견한 금성인 오손의 발자국을 석고로 뜨고 있는 윌리엄슨



손으로 비추어보면서 탐색하던 동안에 완전히 같은 장소를 발견한 것이다. 그 반대 방향 경사면의 비행접시의 일부가 착지해 있던 장소에 애덤스키가 서있는 사진도 윌리엄슨 박사의 책에 실려 있지만 이 위치도 사진과 대조해서 손쉽게 발견했다. 이상이 제 2차 조사의 성과이다. 그러나 애덤스키가 금성인과 접촉 직전에 촬영한 「말 안장」모양의 움푹 들어간 부분에 검은 비행접시가 기체를 반정도 내비치고 있는 사진과 일치하는 장소는 아무래도 발견되지 않았고 제 3차, 4차의 조사에서도 실패로 끝났지만 실망은 하지 않았다. 우리들은 「신념의 힘, 희망의 힘, 절대로 단념하지 않는 힘」을 애덤스키의 저서를 통해 배웠으며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견할 때까지는 매년 탐색을 계속하기로 동료들끼리 다짐을 했던 것이다.

〈그림-3〉 저자가 촬영한 애덤스키의 접촉 지점



이 장소는 1989년 1월 21일 위의 사진을 손에 들고 탐색하고 있던 저자가 발견했다.

출발 때부터의 예감이 적중

그래서 1992년 1월에 또다시 제 5차 조사를 결행했다. 필자의 동행자는 일본 GAP의 도쿄 임원, 시노마사시, 다나카 준, 마쓰무라 마사무리, 가토 준이찌 네명이었다. 1월 25일에 나라타를 출발한 일행은 로스앤젤레스에서 다니엘 로스와 합

류하여 6명이 되었다. 호텔 홀리데이 인 할리우드를 26일 이른 아침에 출발, 렌트 카를 빌려 잠깐 로스씨가 운전했고, 교외로 나가서는 다나카 씨가 운전을 했다. 「UFO — 우주로부터의 완전한 증거」(중앙 아트 출판사 간행)의 저자인 다니엘은 나의 절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가 있으면 대단히 마음이 든든했다. 한마디로 사막센터라고 해도 도쿄에서 나고야로 가는 정도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먼 거리이다. 산베르날디노 자동차 전용 고속도로를 시속 120Km로 질주하는 것은 쾌적했지만, 「말 안장」모양의 장소가 걱정되어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출발 때부터 일찍이 느껴본 적이 없는 특수한 느낌이 있었고, 뭔가 엄청난 일이 발생할 것만 같은 예감 같은 것이 있었다. 그리고 예감대로 되었던 것이다. 도중에 2번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현지에 도착한 것은 오전 11시경이었다. 마치 우리 집 정원처럼 잘 알고 있는 사막센터 일대였지만, 일단 애덤스키가 언급한 말을 따라서 주유소로부터 11마일 정도 파커가도를 달렸고, 다시 반 마일 되돌아와서 사막지대로 들어갔다. 그리고 즉시 전원이 사진을 손에 들고 「말 안장」모양의 장소 탐색에 들어갔다.

삭제된 문장과 무너진 바위산

그러나 애덤스키의 기술에는 어딘가가 납득이 안가는 곳이 있다. 그것은 그가 처음에 6인치 반사망원경으로 명함판 독일제 구식 목제 카메라를 꺼내어 반 마일 저편의 높은 바위산의 움푹 패인 곳에 있던 비행접시를 촬영한 뒤, 다음에 브로니 카메라를 달고 그 비행접시를 촬영했다고 하는 부분이다. 그가 사용한 6인치 반사망원경은 그가 친교가 있던 파로마 천문대의 직원 존슨 박사의 모친이 애덤스키에게 선물한 것으로, 모친은 애덤스키의 제자였다. 이 망원경의 집점거리는 확실하지 않지만, 6인치 반사는 대체로 900밀리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명함판 카메라를 달았다면, 35밀리 카메라로 환산해서 약 450밀리 렌즈를 장착한 것과 같다. 상당한 망원이다. 그런데 애덤스키는 그 직후에 코닥의 브로니 카메라를 꺼내어 「말 안장」의 비행접시를 촬영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 브로니 카메라는 2차대전 훨씬 이전에, 미국 코닥사가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던 6×9센치판 카메라의 한 종류이지만 당시는 주름상자 부착의 조립 카메라부터 박스형 카메라에 이르는 다양한 종류의 카메라를 판매하고 있었다. 독일 코닥사에서든 텍서렌즈 부착의 코닥 리젠트라고 하는 우수한 브로니 카메라를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렌즈 교체를 할 수 없는 당시의 6×9센치의

브로니라면 렌즈는 105밀리가 표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카메라로 반마일 저편의 말 안장에 기체를 반정도 드러내 보이고 있는 비행접시의 사진을 찍는 일은 불가능하다. 코닥 사진은 아무리 봐도 바로 눈 앞에 전개되고 있는 풍경을 찍은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그러면 처음에 망원경으로 찍은「말 안장」과, 그 후 브로니 카메라로 찍은「말 안장」은 다른 것이 여야만 한다. 다시 말하면 비행접시는 처음, 훨씬 높은 바위산의「말 안장」에 있었고, 다음에 눈앞의 낮은 위치의 다른「말 안장」으로 이동했다고 하는 것이 된다. 이것은 시노씨와 로스씨의 의견이기도 하다. 이상과 같이 보면 애덤스키의 기술에 몇 줄인가 탈락한 곳에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이 나의 지론이었다. 요컨대 비행접시는 처음 반마일 저편의 높은 바위산의「말 안장」에 있었고, 그것을 애덤스키가 망원경으로 찍은 직후에 이번에는 바로 눈앞의 다른「말 안장」까지 하강해서 정지한 것을 코닥으로 찍었다고 하는 줄거리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 곳의 문맥이 도중에 끊어져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은 것이다. 뫼가의 사정에 의해 출판사가 문장을 삭제했거나, 또는 애덤스키가 삭제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본시 애덤스키가 접촉할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이 전개되었던 것 같지만 이것에 관해서는 그의 저서에 쓰여 있지 않고 다만 윌리엄슨 박사가 생전에 그 일을 나에게 넌지시 얘기해 주었을 뿐이다. 다른 정보소식통에 의하면 접촉 시에는 상공에 수천 대의 비행접시가 출현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것은 2천년 전에 지구에서 예수라고 불렀던 사람이 환생을 거쳐 금성인으로서 사막센터로 날아왔으며 옛날, 골고다의 언덕에서 그를 마지막까지 구출하려고 했던 요한이 똑같이 환생을 거쳐 이승에서 애덤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되어 그 두사람이 2천년만에 사막센터에서 재회했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을 축복해서 상공에 무수한 비행접시가 출현했다고 하는 것이다. 6명의 목격자들은 그날의 엄청난 광경을 알고 있었지만 모두 극비로 하고 이 세상을 떠난 듯 하다. 애덤스키가 중대사를 비밀로 했던 것은 종교계로부터의 공격을 경계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해가 떨어질 때까지 열심히 탐색했지만 결국「말 안장」은 발견하지 못하고 다음날을 기약하며 철수했다. 그렇다고 해서 로스앤젤레스까지 되돌아 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차로 50분인 아리조나주와의 주경계에 있는 브라이즈라고 하는 마을에서 숙박했다. 이곳은 이전에도 왔었기 때문에 모습은 알고 있었다. 모텔 식스의 큰방을 1인 1박에 21달러(당시 환율로 2700엔)로 빌렸다. 도쿄의 호텔과 비교하면 거저나 다름없었고 그 밖에 물가가 싼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날 밤은 다나카씨의 방에 모여서 로스씨를 둘러싸고 와인을 마시며 유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엽권연 모양의 대 모선이 출현

다음날 사막센터로 달렸다. 구름 한 점 없이 쾌청한 날씨였다. 사막지대는 따뜻했고 섭씨 24도로 일본의 5월 초순의 기온이다. 또다시 역할을 분담해서 「말 안장」모양의 장소를 찾았다. 일동은 진지하게 돌아다녔지만 그런 곳은 좀처럼 발견되지 않았다. 오후 한시 반경에 차가 있는 곳에 모여서 점심을 먹었다. 나는 시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만 마셨다. 대 사막의 한복판에서 창공을 우러러보며 대우주 사념법을 행하자 더할 나위 없이 상쾌했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대우주에 융합되는 것 같은 느낌이 용솟음쳤다. 이때 갑자기 쌍안경을 꺼내고 싶어졌다. 빅센의 다하프리즘 부착 8배 20밀리 소형포켓용이지만 성능을 우수하다. 과거의 탐색에서는 쌍안경을 휴대용 가방에 넣어놓고도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웬일인지 꺼내어 목에 걸고 있었는데 이것이 얼마 안되어 절대적인 위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식사후 일동은 탐색을 재개했다. 사진을 한 손에 들고 열심히 돌아다녔다.

「이번에 못 찾으면 나는 할복할거야」라고 투덜거리자 「그때는 내가 목을 쳐드리죠」라고 가또씨가 농담을 했다.

「그렇지만 칼이 없는걸」

「비행접시에서 던져주면 좋을 텐데」하고 농담도 할 수 있을 만큼 일단 휴식을 취한 상태였다. 2시가 조금 못돼서 내 카메라 가방과 필름홀더 그리고 그밖에 자질구레한 물건을 넣은 가방이 있는 장소로 가보았다. 이곳은 애덤스키가 망원경과 함께 꼼짝 않고 앉아 있었던 장소란 것을 내가 윌리엄슨 저서의 사진으로 실증했기 때문에 가또씨가 일부러 그 곳에 가방을 놓아 둔 것이다. 이곳에서는 시노씨가 서서 「말 안장」은 아무래도 저것 같다며 전방의 낮은 바위산을 가리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었다. 언뜻 보기에 애덤스키 사진의 언덕과는 윤곽이 달랐지만 시노씨의 설명에 의하면 바위자체가 상당히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지형이 변했다고 했다. 사진 속에 보이는 좌측의 검은 경사면도 갑작스런 홍수 때문에 지형이 크게 변한 것일 거라고 했다. 그런데 오전 중에는 이곳 상공에 비행기가 전혀 날지 않았었는데 오후에는 빈번히 전투기가 흰 연기를 내뿜으며 어지러이 날아다녔다. 그때는 훈련 때문일 것이라며 마음에 두지 않았으나 나중에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일임을 알게 되었다. 2시가지나 왼쪽에 있던 가또시가 소리쳤다.

「저게 뭐죠?」

「앗. 이상한 물체다!」 일동은 제각기 소리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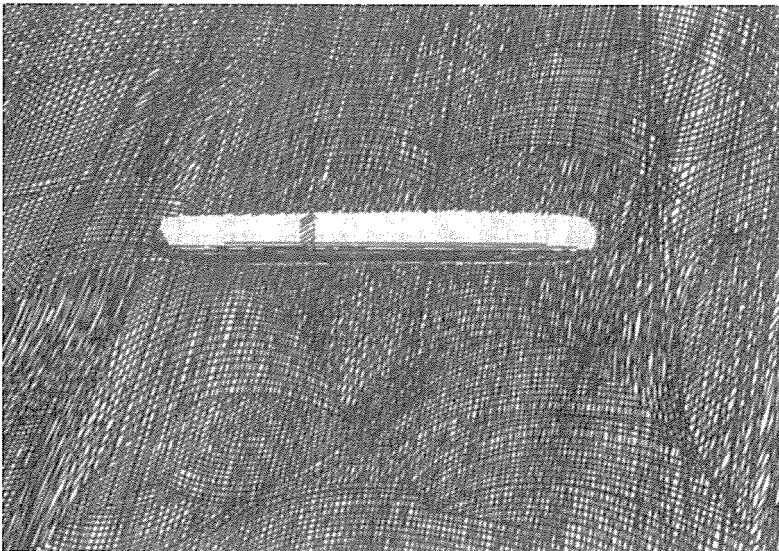
「뭐? 뭐야 안 보이는데? 눈이 나쁜 건가!」

그러나, 나도 곧 육안으로 포착했다. 서둘러 쌍안경을 들어 관측했다. 보니까 둥그스름하고 하얗게 빛나는 대단히 길고 가느다란 물체가 양각(仰角) 45도 내지 50도의 창공을 서에서 동으로 날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왼쪽 아래의 매우 떨어진 위치에 한 대의 전투기가 비행운을 남기면서 병행으로 날고 있었다. 물체에는 날개가 없었다. 뒷부분의 수직날개도 없었다. 긴 동체의 중심에서 조금 왼쪽으로 치우친 부근에 세로로 검은 줄무늬 같은 것이 붙어 있었다. 꼬리날개 같은 것도 눈에 띄지 않았다.

「야, 모션이다!」일동은 쌍안경을 눈에서 떼지 않은 채 떠들어댔다. 물체는 전투기보다 훨씬 높은 쪽을 날고 있었는데도,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것으로 보아 대단히 거대한 물체일 것이라 생각했다.

이 UFO는 2시 3분부터 6분까지 약 3분동안 보이다가 이윽고 오른쪽에서 다른 제트기가 물체 쪽으로 날아오자 이상하게도 곧장 사라져 버렸다. 나중에 가토씨가 이야기 한 바에 따르면 점심식사 전에도 이것과 매우 비슷한 물체가 소리 없이 나

〈그림-4〉 1992년 1월 27일 오후 2시 3분, 사막센터
상공에 출현한 거대한 우주선



저자가 8배 쌍안경으로 관찰한 결과 날개가 없고 동체의 중앙으로부터 조금 후방의 위치에 세로로 검은 줄무늬가 붙어 있었다.

는 것이 더욱 크게 보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UFO는 이미 이곳 상공에 와있었던 것일까? 시노씨가 말안장은 「이곳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을 때에 다나까씨가 「이 장소가 맞는다면 제발 신호를 보내주세요」라고 상공에 텔레파시로 상념을 보냈더니 이윽고 물체가 출현한 것이라고 한다. 점심때부터 끊임없이 전투기가 어지럽게 날아다니게 된 것은 「동일한 UFO가 종종 상공에 출몰하는 것을 부근 공군기지의 레이더가 포착하고 스크램블(적기를 요격하기 위한 전투기의 긴급발진-역자주)을 건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은 일동의 의견이기도 했다. 이렇게까지 전투기가 난무하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일동은 너무 좋아서 기뻐했다. 드디어 모선이 출현했다. 다른 장소에 있던 마쓰무라씨를 제외하고 5명 전원이 목격했고 그 중 3명은 쌍안경으로 확인했다. 두 사람만이 눈으로 관측했다. 쌍안경으로 본 로스씨까지도 「날개가 없었다!」라며 흥분한 기색으로 말하고 있었다. 다나까씨의 텔레파시에 답하여 출현했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모여 있던 장소는 애덤스키가 촬영했던 장소이고 시노씨가 말한 것처럼 그 장소에서 바로 북쪽에 보이는 낮은 바위산이 말안장과 관계가 있는 산일 것이다. 이 사건은 로스씨의 사진설명을 참조하기 바란다.

말 안장 언덕은 무너졌다

시노씨가 말한 말안장에 해당하는 언덕은 다년간 무언가의 이유에 의해 상당히 무너져 있고 애덤스키가 촬영한 사진과 일치하는 윤곽은 대략적인 형상만 남아 있을 뿐이라고 한다. 이곳은 사막지대라고는 해도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처럼 아름다운 미세한 모래 바다가 아니고, 단단한 지면에 자갈이 산재해 있고, 여기저기에 키 작은 관목이 서 있는 볼모지대다. 게다가 때로는 비가 내려서 갑작스런 홍수가 나는 일도 있었으므로, 어쩌면 40년 동안 거듭된 홍수에 의해 지형이 변화된 것일 지도 모른다. 그래서 여기저기에 작은 강줄기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한가지 더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애덤스키가 처음 책을 출간하고, 이것이 전 미국에서 유명해졌을 때 이 사막센터로 연일 수 천명이 모여들었고, 그 때문에 음식물을 파는 이동식 가게까지 생겼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 구경꾼들에 의해 언덕이 황폐해지고 바위산등이 무너져 내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언덕의 윤곽도 변화될 것이다. 정확한 접촉 지점은 윌리엄슨이 저서를 펴낼 때까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다. 단서는 애덤스키의 첫 번째 저서의 사진 뿐이다. 그것을 손에 든 군중이 비슷한 지형의 언덕에 올라가서 마구 짓밟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사막 센터라고 불리우는 이 지역, 즉 엄밀히 말하면 주유소로부터 파커가도를 10.5마일 나아간 곳에서 차를 내려 그 곳에서 산쪽으로 590미터 들어간 낮은 언덕 경사면의 아래쪽 부분 모래땅이 1952년 11월 20일의 애덤스키와 금성인의 역사적인 회견지란 것은 틀림 없다. 이는 5회에 걸친 조사로 단언할 수 있다.

〈그림-5〉 다니엘 로스씨에 따른 견해



애덤스키는 처음 1의 지점에 있었고, 이곳으로부터 「말안장」사진을 찍었다. 그 후 그의 지점에 금성인이 나타나서 손짓으로 불렀다. 그래서 애덤스키는 그 곳까지 걸어 갔고 장시간 텔레파시로 대화를 나누었으며 금성인 오손은 지면에 발자국을 남겼다. 이것을 나중에 윌리엄슨이 석고로 찍었다. 그 다음에 오손과 애덤스키는 4 위치의 언덕 안쪽 경사면에 정지해 있던 비행 접시쪽으로 걸어 갔다. 비행접시는 언덕의 경사면에 프렌치의 끌을 대고 있을 뿐이고 기체의 대부분은 공중에 떠 있었다. 촬영/다니엘·로스)

해면의 이상한 현상

우리들은 1월 29일에 예정대로 로스엔젤리스에서 싱가포르 항공기로 귀로에 올랐지만 약 1시간 후, 샌프란시스코 앞 바다 해상에서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고 다시

한 번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해면에 굉장히 긴 검은 그림자가 비치고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바다 속에 뭔가 돌출물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긴 직선모양의 그림자는 우리가 탄 여객기와 같은 속도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 그림자는 상당히 오랫동안 보였다.

이윽고 여객기는 해면의 절반 이상이 흰 구름으로 뒤덮여 있는 지역으로 접어들었지만 이번에는 구름의 표면에 그 긴 그림자가 비치고 있었다. 이것은 결코 비행기의 그림자가 아니고 길고 가는 물체의 그림자이며 게다가 그 길이는 수십 킬로미터에 이르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일까? 수수께끼는 깊어만 갈 뿐이었다. 고공에 있는 모선이 특수한 방법으로 해면에 거대한 그림자를 확대투명한 것일까? 다른 승객은 눈치를 못채고 있다. 목격한 사람은 우리들 뿐이다. 후일 M씨에게 사진을 보였더니 침형 대 모선의 그림자가 아닐까요? 라고 말했다.

예수의 실상과 환생 법칙

전장 「거대우주선, 사막센터 상공에 출현!」중의 1952년 11월 2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사막 센터에 착륙했던 비행접시로부터 나와서 애덤스키와 회견한 금성인 이야말로 2천년 전, 팔레스티나에서 우주 법칙을 설명했던 바로 그 사람이며 애덤스키는 끌고다 언덕에서 책형에 처해졌던 예수를 최후까지 구출하려고 했던 요한이었다 라고 하는 기술에 관해서 자세한 내용을 언급해 보기로 하겠다.

예수그리스도는 실재했던 인물

초 위대한 지도자 예수그리스도의 관한 전기로서는 신약성서 외에는 없다. 그러나 이 책은 약 2천년 전에 쓰여진 것이고, 내용은 상당히 황당무계한 부분이 많으며 어느 부분이 진실이고 어느 부분이 창작인가 짐작이 가지 않는다. 이것을 전면적으로 믿을 것 인지의 여부는 읽는 사람의 자유지만 실증주의를 관찰하는 논픽션 연구가로서의 입장에서 고찰하면, 도저히 성서의 모든 것을 그대로 믿을 수만은 없다. 예를 들면 예수가 갈릴리 호수의 수면을 걸었다 라고 하는 사건도, 상공에 비행접시가 있어서 특수한 힘으로 예수의 몸을 끌어 올렸든지, 호수 안에 다른 혹성에서 온 소형잠수함이 있어서 수면까지 나온 선체 상부에 예수를 태웠던 것이라든지, 그럴듯한 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쉽게 수증이 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배반자라고 여겨지고 있는 유다 역시도 사실은 예수를 배반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도우

려고 했다는 것이 맞는 말일 것이다. 조직의 회계담당으로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던 그는 스승 예수의 위급한 사실을 알자마자 독단으로 금을 꺼내어 대제사장 가야파의 부하에게 그것을 맡기고 도울 방법을 부탁했다. 그러나 금을 받은 남자는 도망쳐 버렸고 대제사장에게 유다의 의도는 전달되지 않았다. 뇌물 공작에 실패한 그는 비통한 생각에 사로잡혀 게데론 골짜기에 몸을 던졌다. 이상은 애덤스키가 포마로 이 여사에게 전한 이야기로 그 내용은 신 애덤스키 전집에도 수록되어 있다. 단 필자는 수상보행에 관한 여러 설을 전적으로 경시하지 않는다. 한 개의 정보로서 마음 한구석에 쌓아둔다. 연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가설로부터 출발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본래 성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쓴 것이 아니고 예수 사후에 제자들에 의해 문자화된 문서가 되었으며 그 중심을 이루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4대 복음서이다. 그 내용은 비슷하지만 여기저기에 어긋난 점이 있는 것으로 봐서 누군가 한 사람이 쓴 문장을 다른 사람들이 참고로 했다고 생각된다. 학계의 연구에 의하면 필두를 장식하는 마태복음이 실은 마태 본인에 의한 기술이 아니고 유대인 예수신봉자가 시리아 부근에서 쓴 것이고 따라서 상당히 조작적인 부분이 보인다고 한다. 그러나 예수는 단순한 전설상의 가공 인간이 아니고 틀림없는 실제의 인물이다. 이것은 3번에 걸친 필자의 이스라엘 여행에서 예루살렘에서 다년간 거주하고 있는 필자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연구가 샤까끼바라 시게루선생의 대 연구의 성과로부터 알 수 있었던 일이고 애덤스키의 「제 2혹성으로부터의 지구방문자」에서도 예수가 지구인에게 우주 법칙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혹성으로부터 환생에 의해 지구로 온 사람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그 외, 역사적인 다수의 사적이나 전승으로 보아 예수의 실재에 의문의 여지는 없다.

왜곡된 예수의 출생 장소

예수라고 하는 것은 속칭이고, 정확히는 히브리어로 여호아라고 한다. 이것이 그리스어로 음역되어 예스스라고 불리게 된 30대의 남자는 「나야말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동포 유대인에게 미움을 받고 결국 로마군에게 붙잡혀서 끌고다 언덕에서 처형당했다. 그의 출생 때부터 청년기에 걸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고 앞의 기록처럼 유일한 전기인 신약도 미화된 부분이 많아서 믿기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기독교의 신학사상과는 별도로 예수살렘 유적을 세밀히 조사해 보면 대제사장의 부하들이 갯세마네 정원(이 정원은 현존하고 있다)에서 기도를 마친 예수를 붙잡아 게데론 골짜기를 건너 돌계단을 올라가서 왼쪽 옆에 있던 대제사장 저

택의 안뜰로 데리고 들어가 하룻밤 감시한 뒤 로마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군중의 소동에 떠밀려 빌라도가 하는 수 없이 십자가에 매단 일은 틀림없는 사실로써 역사상 실재했던 인물이란 것을 알 수 있다. 여담이지만 상기한 돌계단도 발굴되어 현존하고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예수가 직접 접촉한 유적으로서 최고라고 일컬어지는 귀중한 물건이지만 세 번째에 갔을 때는 많은 돌이 도난 당해서 차마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다. 건축재료로 쓰기 위해 가지고 간 듯하다. 예수가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것 때문인지 현지로 견학하러 온 일본인 목사님들은 예수그리스도의 출생지인 베들레헴에 오면 목조의 구유를 연상하고 「말구유는 어디 있습니까?」라고 묻기도 한다며 사까끼바라씨는 쓴웃음을 짓고 있었다. 예수가 태어난 것은 목조의 구유가 아니라 거대한 암벽을 도려내어 만든 동굴여관의 말을 가두는 방이다. 이것도 현존하고 있다. 유적을 언급하면 길어질 것 같아 생략하겠다.

수수께끼 성해 포(聖骸布)의 역사

유적과는 별도로 예수의 실재를 증명하는 중요한 물건으로써 성해 포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체를 찢던 포목이라 여겨지는 유명한 물건으로 현재는 이탈리아·토리노의 사보이가(家)채플에 보존되어 있다. 신약에 의하면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1절에 걸쳐서 아리마타야의 요셉이라는 부자가 아마포를 지참하여 예수의 몸을 싸서 새로운 묘 속에 넣어두고 그 입구에 큰돌을 굴러다 막아 놓고 떠났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과 비슷한 기술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도 보이므로 이 매장도 사실일 것이다. 아마라고 하는 것은 아마과(科)의 일년생 작물로써 줄기로 린넨이나 한랭사, 그 밖에 고급직물을 만들 수 있다. 당시로서는 아마포는 고가 품이었음에 틀림없다. 이 때 예수의 몸을 찢던 포목이 현존하는 성해 포라고 생각되어서 세계의 기독교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 역사는 다음과 같다. 기원 30년경 어떤 사람이 에뎃서(현재 터키 동부의 울파)의 왕이었던 아부갈의 집으로 「수수께끼 인물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다. 아무래도 예수 같다.」며 큰 포목을 가지고 들어왔다. 이것이 바로 성해 포가 역사에 얼굴을 내민 시초이다.

이 왕은 예수의 가르침을 믿고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기 때문에 예수 신봉자가 되었으나 57년에 왕위를 계승한 아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까닭 없이 싫어해서 기독교도를 박해했기 때문에 포목은 성벽의 구멍 속에 숨겨졌다. 이후, 500년 가깝게 전설만이 떠돌고 실제물품은 환상으로 변했다. 525년에 에뎃서가 대홍수로 인해 파괴되어 도시의 재건공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때 붕괴되었던 성벽에서 포목

이 발견되었고 그 이후 예수의 얼굴이 그려진 성스러운 물건으로서 숭배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예수의 얼굴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이 그린 것이라고 여겨졌던 것 같다. 단 이 「그림」은 꼭 사진의 음화같이 흑백이 반대가 된 것으로 구체적인 얼굴로는 보이지 않는 그림이었다. 943년 에뎃서는 비자틴 군에게 포위되었지만 주민은 이 포목을 적에게 바쳐서 학살을 면했다. 그리고 1204년까지는 콘스탄티노플(현재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보존되었지만 146년간 공백을 지나 어느 사이엔가 프랑스의 조프 로아·드·샤르니라는 사람의 손에 넘어가 있었다. 이 시기가 다시 말해 1350년대가 성해 포로서 공식적으로 기록된 최초이다. 성해 포는 샤르니의 손녀딸 마르가레의 손에 넘어갔고 돈에 쪼들렸던 마르가레는 이것을 사보이공에게 팔았다(기증했다는 설도 있다). 사보이가는 11세기에 움벨트 1세가 시조가 된 이후 1946년까지 이탈리아에 군림했던 유명한 왕가이다. 그러나 1532년 12월 4일 밤 화재로 포목의 일부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관리를 엄중히 하기위해서 1578년, 사보이 왕가는 포목을 토리노시의 세레 성 요한대성당에 인점한 사보이가의 예배당에 넣어 둔 것이다. 이후 포목은 그곳에 보관되어 「토리노의 성해 포」라고 불리우게 되었다. 그 후 움벨트 2세가 비티칸 교황청에 기증했기 때문에 현재는 바티칸 소유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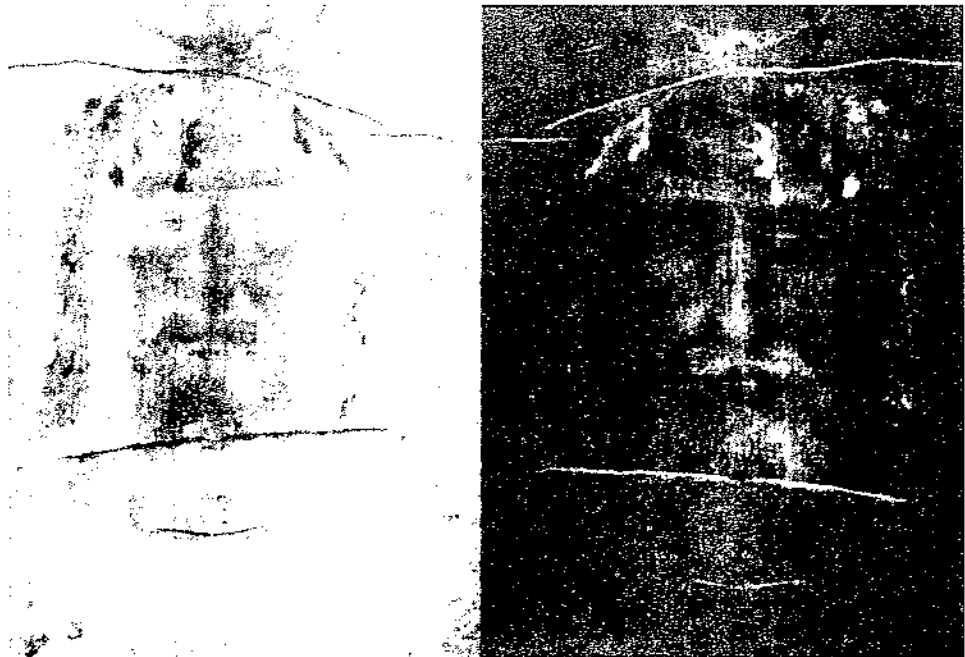
과학계의 대 논쟁과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법

이 성해 포는 폭 1.1미터, 길이 4.4미터로 지금은 상당히 낡아서 누런 색으로 변색되어 있지만 아주 방가진 상태는 아니다. 세로로 팽팽히 당겨 펼치면, 양쪽 끝을 따라서 세로 두 줄에 삼각형 도형이 붙은 모양이 보이고, 그 사이에 한 남자의 정면과 뒤쪽 모습이 포목의 중심부로부터 상하로 거무스름하게 드러나 있다. 이 포목이 예수의 것이라면 책형 후에 포목을 들로 접어 접은 선 쪽으로 유체의 머리를 끼워 넣고 전신을 썬 것 같다. 양손은 하복부에서 교차하고 있다. 그러나 1898년에 극적인 대 발견이 이루어 졌다. 이탈리아의 변호사이자 사진가인 세콘도·피아가 사상 최초로 사진촬영 허가를 얻어 촬영 후에 건판을 현상했더니 놀랍게도 그 음화에 장엄한 얼굴을 한 인물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다시 말해 포목에 나와있는 거무스름해진 기묘한 모습은 원래 흑백사진의 음화에 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아가 촬영한 음화에 나타난 모습이 인화지에 인쇄된 보통 사진이 됐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 선풍을 일으켰다. 이제까지 화가의 손으로 그려진 그림이라고 생각되고 있던 것이 일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성흔이 되었으며 진위를 둘러싸고 학계에서 대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과학자의 논쟁이 복잡하게도 여러 갈래이기

때문에 상술은 피하겠지만, 1902년에 프랑스 의학자 이브·드라쥬 박사가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에 이 성해 포는 진실이라는 실물설을 발표했다. 의학자 폴·비농은 이 성해 포는 향료에 의해 조작되었다고도 했다. 또한 1931년, 이탈리아의 사진가 쥘레페·엔리에에 의한 진보된 촬영기술을 구사한 실물설과 1959년, 독일 과학자들은 X선, 적외선, 자외선 검사를 통하여 성해 포의 진위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1970년, 미국 NASA의 과학자 존 잭슨 등의 VP-8 응용에 의한 컴퓨터 입체 화상 분석의 결과 주장된 실물설과 1978년, 미국의 과학자를 주체로 한 과학자들의 모임에 의한 5일 밤낮에 걸친 조사 결과 내려진 실물 확신설 등도 있다. 이 성해 포의 모습에도 대단한 수수께끼가 있다. 보통, 인간의 얼굴에 페인트를 칠하고 그것에 천을 둘러 감은 뒤에 펼치면 양 귀까지의 부분은 옆으로 가늘고 긴 타원형으로 전사되는 것이 당연한데, 성해 포의 모습은 그와 같은 것을 없고 인간의 얼굴이 입체적으로 도드라져 있는 것이다. 이 수수께끼는 풀 수가 없다. 만약 화가가 그린 것이라고 한다면 해부학에 관한 고도의 지식을 필요로 할 것이다.

성해 포 속의 남자

〈그림-6〉 성해 포의 얼굴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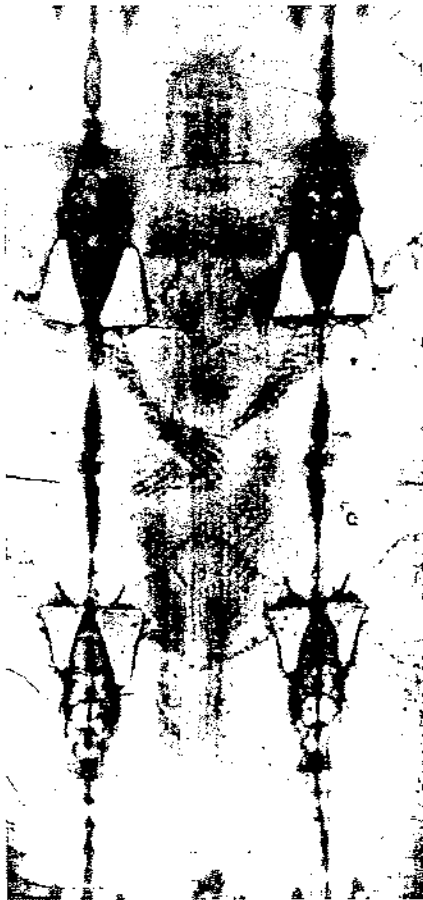


왼쪽이 천에 나와있는 모습이고 오른쪽은 그것을 촬영한 사진의 음화. 정상적인 얼굴로 보인다.

이 천의 모습을 조사한 결과 판명된 것은 남자의 신장은 176미터, 체중은 약 79kg 연령은 30세 정도였다.

용모는 유대인의 용모였다. 상당히 튼튼한 체격이었던 것 같다. 교회 예술의 조각이나 그림에 보이는 여위고 연약한 예수의 몸과는 전혀 닮지 않은 모습이다. 콧수염과 턱수염을 상당히 기르고 있었던 흔적이 있다. 탄압에 굴하지 않고 왕성한 포교활동을 했으므로 튼튼한 몸이 아니라면 계속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스피커가 없는 시대에 옥외연설을 했던 것이므로, 어지간히 큰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군중에게는 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보면 복근이나 성대가 발달한 비만형의 몸집이 큰 남자가 연상된다. 사람들을 질타한 우두머리 기질을 가진 호쾌한 남자였다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성해 포 연구의 결과 구체적으로 판명된 것은 다음과 같다.

(그림-7) 성해포의 전신상



찢어져서 피가 나왔고, 이마와 후두부에 피 얼룩이 있으며, 예리한 날붙이로 배인 흔적이 12군데였다. 코는 부러지고, 두 눈도 부어있으며, 눈꺼풀도 찢어져 있었다. 심하게 얻어맞았던 것은 명백하다. 두 뺨에도 배인 상처가 있었다. 얼굴과 손발 이외의 몸통에는 무수한 상흔이 보이고 있다. 이것은 남자의 양쪽에 있던 두 명의 인간에게서 채찍으로 맞은 흔적 같다. 오른쪽에 키가 큰 남자가, 왼쪽에 키가 작은 남자가 서서 교대로 때린 것 같다. 남자 모습의 양어깨에 심하게 깎질이 벗겨진 흔적이 남아 있다. 이것은 무거운 물건을 옮긴 결과라고 생각된다. 당시 예루살렘의 책형 죄인은 십자가 전체를 짊어져야 했던 것이 아니고, 통나무의 가로 목만을 옮겨야 했던 것이다. 기둥은 미리 형장에 세워져 있었다. 그러나 가로 목이라고 해도 40kg을 넘는 중량이었다고 생각되고 있다. 무릎도 까진 흔적이 있다. 형장으로 가는 도중 몇 번인가 땅에 넘어졌을 것이다. 오른쪽 옆구리의 다섯 번째 갈

비뿔과 여섯 번째 갈비뼈 사이에 상처받은 자국이 나있고, 혈액과 창에 찢려서 나온 체액이라고 생각되는 두 색의 액체 얼룩이 성해 포에 남아있다. 또 두 눈에는 동전이 끼워져 있었던 것도 판명되었다. 이것은 사후의 경직을 막기 위하여 시체의 눈꺼풀에 동전 또는 얇은 도기의 파편을 끼워 넣는 유대인의 관습에 따른 것인 듯 하다. 시체를 씻은 흔적은 없다. 그래서 천에는 혈흔이 남아 있는 것이지만 이것에 관해서 중요한 결과는 나와있지 않다. 이상은 1978년 10월까지 과학자들에 의해 발견된 결과이다. 그러나 탄소 14연대 측정은 그 시점까지 실시되지는 않았었다. 미국의 화학자 위라드·F·리비가 1946년에 개발한 방사성 탄소에 의한 연대측정법은 고고학계에서 일약 각광을 받았으나 이 방법이 절대적으로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다. 측정자에 따라서 상당한 오차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동일한 시험재료를 여러 명이 분석해서 측정하고 그 평균치를 내는 쪽이 좋다고 토리노 조사단의 한 명인 도·데벤은 말하고 있다. 이 측정법을 성해 포에 적용해보자는 바람이 오래 전부터 있었으나 로마 교황은 쉽게 승낙하지 않았다. 그러나 1988년 가까스로 바티칸이 유럽 여러 곳의 연구소에 성해 포의 자투리를 보내어 탄소 14연대측정을 의뢰한 결과 놀랍게도 14세기의 천이라는 보고가 나왔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대 모션 안에서 예수의 영상을 보다

여기서 외계인과의 피접촉자로 알려진 일본인 M씨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1992년 6월 5일의 정오가 조금 지났을 무렵 도쿄 시내 서쪽 신쥬꾸 고층 빌딩가의 한 구석에 있는 다방에서의 만남이었다. M씨는 여느 때처럼 대단히 진지하게 열변을 토했다. 듣는 사람은 필자뿐이었다. 「예수에 관해서는 비교적 몸집이 작은 사람이었다고 우주인에게 들었습니다. 대단히 광범위한 전지전능의 능력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당시는 권력지배가 강한 시대였기 때문에 무력투쟁에 강한 사람이 이겨서 살아남는 대단히 혼란한 세상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기에 말하자면 지구세계를 다른 방향으로 바꿀 역할을 맡고 나온 사람입니다. 근육질의 체격이 튼튼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얼굴은 조금 호리호리한 느낌입니다. 예수가 행방불명된 시기가 있었는데 그 때는 동양으로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주=예수는 요르단강에서 예언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30세부터 공식적으로 전도활동을 시작했는데 그 이전의 청년기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그 여행기간 중, 동양각지를 돌아다니며 능력이 많은 동양사람들과의 접촉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금후 세계가 어떠한 식으로 움직여 갈 것인가에 관해 이야기를 주고받고 그 뒤에 고향으로 돌아

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주계획에 따른 활동을 전개했던 것이지요」

「동양의 어느 나라들을 갔던 것입니까?」

「기본적으로는 3곳에 갔다고 생각합니다. 티베트는 확실하고 또 다른 곳은 태국 근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한 곳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서는 장기간 은거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때에도 능력이 강한 인간과 접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미 각국에 우주인과 접촉하고 있던 피접촉자가 있었고 그들과의 접촉을 행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조직망을 점점하고, 자신이 사명을 띠고 있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신의 능력향상을 추구하며 깊이 연구하고 수행할 목적도 있었던 것이겠죠. 하나의 상념에 신념을 갖게 되면 앓은 채로 세계 어디에서 이제부터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예지 할 수 있고 게다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나라에서는 이러한 운동을 해야할 지의 여부를 알 수 있게 되지요. 그러한 능력을 완전히 습득해서 자신의 나라로 돌아 왔고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민중의 무의식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커다란 변혁을 맞이하려고 할 때에 민중이 가지고 있는 카르마의 부정적인 측면 즉, 악폐가 커다란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통 때라면 큰 자연재해가 되어 환경에 영향을 줍니다. 예수의 경우는 그러한 카르마의 왜곡된 점을 그 자신이 짊어지는 형태로 제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았다면, 다른 민중이 대량으로 죽고 다치는 일이 일어났겠죠? 그것이 그의 역할이었고 행동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중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도 우주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조속히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묘지에 묻힌 다음날 아침, 막달라 마리아와 또 한사람의 마리아가 묘지를 보러 가자 큰 지진이 일어났고, 주의 사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것이 돌을 옆으로 굴렸다. 그 모습은 번개처럼 빛났으며 그 옷은 눈처럼 희다고 신약의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비슷한 기술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기록되고 있다) 이 이상한 인물은 우주인이고 그들이 특수한 방법으로 예수를 되살렸던 것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환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인의 이례적인 행동이었고 그에게 강한 힘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우주인이 한 개인에 대해서 물리적인 힘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단 한 번의 예외적인 행동이었던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에덤스키에 따르면 예수는 완전히 죽었던 것이 아니고 가사 상태였다고 한다. —성해 포의 연구에 따르면 예수는 상당히 몸집이 큰 사람이었다

고 합니다—.

「비교적 몸집이 작은 사람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신장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어깨가 대단히 벌어졌으며 근육과 골격이 튀어나온 형으로 얼굴은 호리호리하고 약간 길다고 들었습니다.」

성해 포의 경우 번짐 효과 때문에 형태가 커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성해포의 모습으로 정확히 신장을 계산해 보면 상당히 몸집이 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한 번(다른 혹성에서 온)모션 안에서 생존중의 예수 얼굴을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희미한 영상으로 조금씩 움직여 나가는 느낌이 드는 화면이었습니다. 꼭 필름의 화면이 느리게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은 약간 둥근 모양으로 된 스크린에 떠오른 영상으로 마치 비디오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움직임은 원활하지 않았고 선명하지 않았으며 색도 희미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해 포에 나와 있는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그때의 예수가 손을 흔드는 광경이 보였는데 손가락은 길고 울퉁불퉁한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생존시의 모습을 우주인이 무엇인가의 방법으로 촬영한 것입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무엇인가의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는 영상이었죠? 그래서 우주인에게 협력했던 지구인들의 행동유형부터 유전자 유형, 세포분열 유형 등 방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단히 작은 플로피 디스크 같이 생긴 카드 같은 것에 전부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어떻게 부활했는지, 생존시에 우주인과의 사이에서 그의 사명이 무엇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들은바가 없습니다만 이것은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기독교계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기독교의 가르침이 어떠한가 하는가, 예수가 사실은 어떻게 말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정치문제로도 연결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M씨는 이 후에도 끝없이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 했지만 그것은 현대의 정치문제로도 연결되는 2천년간의 장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수록할 수가 없다. 더구나 전술한 탄소 14연대 측정법에 의해서 성해 포가 14세기의 것이라고 간주된 사건에 관해서 M씨는 카톨릭내의 대립으로부터 생긴 문제 때문에 정보공작이 이루어진 것일 거라고 했다. 다시 말해 고의로 가짜 정보를 흘렸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성해 포에 대해선 어느 정도 결말을 지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요한이었던 애덤스키

애덤스키의 「제2혹성으로 부터의 지구 방문자」(중앙 아트 출판사 간행 애덤스키

전집 제1권)의 제2부를 이루는 「우주선의 내부」에 의하면 지구인 속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다른 혹성에서 지구로 우주인이 방문하는 등의 일은 오래 전부터 있었는가라는 애덤스키의 질문에 대해 우주인은 적어도 과거 2천년동안은 계속되어 왔다고 답한 뒤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지구인을 돕기 위해 예수의 책형 이후 부활의 형태로 이루어진 사건 보다, 위험을 줄이고 드러나지 않게 사명을 수행하도록 의견이 결정됐던 것입니다.」(같은 책 206페이지) 이것으로 보면 예수는 분명히 다른 혹성에서 환생하여 온 셈이 된다. 단 이 책에서는 예수가 어떤 혹성에서부터 왔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고 있다. 오래 전에 캘리포니아주의 어느 그룹의 사람으로부터 1952년에 사막 센터에서 애덤스키가 회견했던 금성인은 사실은 예수가 환생한 모습이었다고 들은 것이, 이것에 관한 최초의 정보였다. 그리고 애덤스키로부터 친히 교화를 받았던 엘리스 포마로이 여사로부터도 그후 같은 이야기를 듣고 필자는 갑자기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애덤스키가 아무에게나 이야기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극히 친한 측근에게만 누설했던 것 같지만 어쨌든 예수가 골고다에서 책형에 처해졌을 때 「나는 그곳에 있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것은 요한인 자신이 그곳에 있었다 라는 의미이다. 신약에 의하면 예수의 처절한 죽음을 끝까지 지켜본 것은 막달라 마리아와 그 밖의 사람들로 요한의 이름은 어느 복음서에도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애덤스키의 경우는 자신의 과거세계의 기억에 따른 것이라 생각한다. 원래 그는 대단한 초능력자로 5천년에 이르는 과거세상의 기억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또 텔레파시, 원격투시, 오오라투시에도 발군의 능력을 갖고 있었다고 엘리스 웰즈여사에게서 들은 적이 있다. 그래서 애덤스키가 자택에서 강연회를 개최했을 때는 오오라투시, 과거세상 투시 등을 이용해서 참석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자세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장엄한 예수그리스도의 초상화

사막 센터에 있어서의 접촉은 2천년 후의 해후라는 극적인 것을 뜻한다. 이 접촉 후라고 생각되지만 애덤스키는 과거의 세상을 투시하여 예수의 초상을 그리고 있었다. 그것은 언젠가 애덤스키가 네모난 창틀 속에서 예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대로 그린 것이라고 엘리스 웰즈 여사가 1975년 가을 내가 처음으로 비스타의 여사의 집을 방문했을 때의 말해주었다. 그 그림이 어디에 있느냐고 문자 메시코의 마리아 집에 있다고 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2년 후 필자가 멕시코시티를 방문했을 때에 뜻하지 않게도 나

는 그 그림은 볼 기회가 있었다. 그 때는 것처럼 귀중한 그림을 내게 보여주리라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마리아, 크리스티나, 드루에다 여사는 예전부터 애덤스키의 열렬한 신봉자이며 애덤스키도 그녀에게 호감을 갖고 크리스마스 휴가에 자주 그녀의 집을 방문했었다. 남편은 부동산업을 하는 대부호이고 성과 같은 대저택에 살고 있었다. 일층의 대형 홀 사방을 많은 방이 둘러싸여 있었고 유럽 상류 계급의 저택을 무대로 한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나선계단을 올라가면 2층에도 많

〈그림-8〉 애덤스키가 그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은 방이 있었다. 그 중 하나로 안 내를 받은 필자는 깜짝 놀랐다. 사람크기와 똑같은 크기의 예수의 훌륭한 유화가 벽에 걸려져 있지 않는가? 그림에 재능을 타고난 애덤스키는 자주 유화를 그렸다고 하는데 이것도 멋진 작품이었다. 그러나 잘 보면 상반신은 신중하게 잘 그려져 있지만 밑으로 내려감에 따라서 영성하게 그려져 있다. 얼굴에 중점을 둔 때문일 것이다. 폭발할 것 같은 마음을 억누르며 필자는 가지고 갔던 니콘 F2로 촬영했다. 렌즈가 있는 앞부분을 움직여서 카메라가 비뚤어져 있더라도 피사체를 똑바로 찍을 수 있는 전문용 카메라를 지참하지 않은 것을 매우 후회했다. 작은 그림일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로부터 수년 후에 마리아 여사는 타계했다. 그 때의 유언에 따라서 이 그림은 액자에서 떼어 내지고 캔버스는 말려져서 관속에 넣어, 유체와 함께 태워졌다

고 한다. 그러나 일본인으로 그 그림을 목격한 것은 아마 나쁜일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영광과 불가사의한 카르마에 숙연해 질뿐이다.

심원한 환생의 법칙

환생이라고 하는 현상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애덤스키는 주장하고 있다. 지금은 이 문제가 각 방면에서 연구되고 있으며 인도에서는 과거세상의 기억을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의 증언으로부터 실제로 그것이 실증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어쨌든 과학으로 해명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소위 영혼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애덤스키는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아끼야마씨도 같은 발언을 하고 있다. 이것은 두 사람이 우주인에게서 전해들은 정보인 것 같다. 애덤스키에 의하면 인간의 실체는 숨이 끊어진 뒤에 평균 30초 내에 다른 신생아의 육체로 이행하는데 그것은 태아가 모체에서 나온 순간이라고 한다. 따라서 수태한 순간이 아니다. 소위 심령문제에 관해서는 아직 미해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인간의 생애는 한번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다. 무수한 환생을 거쳐서 여러 가지 생애를 체험한다. 어떤 때는 유색인으로, 어떤 때는 백인으로, 어떤 생애에서는 남자, 때로는 여자로 태어나서 지구상의 여러 나라를 전전한다. 이렇게 해서 지구상의 수업을 마치면 고차원적인 혹성으로 환생한다. 졸업할 수 없으면 언제까지나 같은 혹성의 각지로 『낙제』환생을 계속하며 수행을 계속해야 한다. 정신적으로 고양되면 태양계에서 다른 태양계로, 은하계에서 다른 은하계로 대우주 공간의 환생 여행을 계속하는 것이다. 이상의 일은 지구가 우주시대로 돌입하는 다음세기의 중요한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역사의 이면과 인간의 카르마(KARMA)

애덤스키가 사막 센터에서 회견한 금성인은 예수이며 애덤스키 자신은 요한이었다 라는 이야기는 일반에게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고 애덤스키도 그것만은 숨겼던 흔적이 있다. 이것은 종교계의 공격이나 조소를 경계해서 그러했다고 생각한다. 너무나 영똥한 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독자도 반신반의 할 것이다. 「정말로 진짜 같은 것이 거짓이고 거짓 같아 보이는 것이 의외로 진짜다.」라는 격언이 있는데 굳이 이를 판단기준으로 삼지 않아도 수수께끼 같은 사건은 이 세상에서 끊어질 않고 있다. 논픽션 연구가에게 있어서 기사거리가 없어지는 일은 거의 없다. 이 세상의 이면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애덤스키

문제처럼 일반의 상식과는 동떨어진 문제에 대한 개인의 믿음·불신은 본인의 학식 교양을 넘어선 무엇인가의 기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같다. 그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카르마」라고 하는 것이며 더구나 그것은 이승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먼 과거 세상에서 축적되어 온 결과를 이승에서 발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4~5세에 악기 연주에 천부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어린 아이는 양친이나 조상으로부터 이어 받은 유전적 요소도 있겠지만 과거 세상에서 뛰어난 음악가였던 본인의 재능을 이승으로 가지고 넘어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무명의 한 소년이 열렬히 예수그리스도를 동경하는가 하면 대 실업가가 돈에만 집착하며 생애를 마친다. 이것도 개인의 카르마에 의한 것일 것이다.